

3代가 함께 2만1천400㎡서 年 40-50t 생산

9월 친환경농산물 장성 ‘무농약 쌈채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9월 친환경농산물로 장성 ‘무농약 쌈채소’를 선정했다.

장성군 이혁재(51)씨 가족은 아버지에서 이씨, 다시 세 아들로 이어지는 3대에 걸쳐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고 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 농업에 뛰어든 이씨는 현재 부인과 함께 농사를 짓고 있으며 세 아들도 친환경농업에 힘을 보태고 있다.

이씨 가족이 재배하는 작물은 상추와 깻잎 등 쌈채소를 비롯해 오이, 방울토마토, 미나리 등이다. 재배 면적은 이씨 8천㎡, 첫째 아들 7천600㎡, 둘째 아들 3천㎡, 셋째 아들 2천800㎡ 등 총 2만1천400㎡로 연간 40-50t의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한다.

연간 매출액은 약 4억5천만원이다. 생산한 농산물은 학교급식 공공센터와 급식

이혁재씨 가족 연간 4억5천만원 매출

상추·깻잎·오이·방울토마토·미나리 등

유기농 전환·시설개선 기후변화 대응

업체, 로컬푸드, 개인 소비자 등에 공급된다.

2024년부터는 유기농업 전환을 추진해 일반 농산물보다 약 10-15% 높은 가격에 판매하는 등 친환경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쌈채소는 비타민과 무기질,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베타카로틴과 폴리페놀 등 항산화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이씨는 기후변화에 대응해 시설하우스에 차광망과 천창을 설치하는 등 이상고온 피해를 줄이는 데도 힘쓰고 있다.

토양 관리에도 공을 들인다.

‘땅이 살아 있어야 작물이 튼튼하다’는 신념으로 유용 미생물과 친환경 인증 퇴비, 천연 영양제를 활용해 건강한 토양을 유지하고 있다.

이혁재씨는 “기상이변으로 재배시설 개선이 필요하지만 농가는 자금과 경험 부족으로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며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우수 농장의 시설과 재배기술을 표준화해 농가가 쉽게 적용하는 모델을 마련하고 친환경농가의 생산비 부담을 낮추는 지원이 확대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영석 친환경농업과장은 “기후변화와 생산비 상승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친환경농업을 지키는 농업인이 영농활동을 이어가도록 생산비 절감과 시설 현대화, 판로 확대 등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최명진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장성 무농약 쌈채소를 9월 친환경농산물로 선정했다. 사진은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며 쌈채소를 재배하고 있는 이혁재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제공〉

광주 본량·삼도농협 ‘하나로’ 합병 가결...‘강소 거점’ 도약

본량83.4%·삼도89.7% 조합원 찬성

12월 창립총회 등 통합 절차 마무리

광주 본량농협과 삼도농협이 조합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한 합병을 통해 ‘강소(強小) 거점 농협’으로 새롭게 출범한다.

16일 농협중앙회 광주지역본부에 따르면 최근 본량농협과 삼도농협의 신설 합병 조합원 찬반 투표가 압축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최종 가결됐다.

〈사진〉

투표 결과, 본량농협은 전체 조합원 876명 중 622명이 투표(투표율 71.1%)에 참여해 83.4%(519표)가 찬성했다. 삼도농협 역시 전체 791명 중 591명이 투표(투표율 74.7%)해 89.7%(530표)의 찬성률을 기록했다.

전남광주 광산구에 위치한 본량과 삼도 지역은 대표적인 미곡 생산지지만 급격한 농촌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로 개별 조합원 수가 700-800명 대까지 급감하며 구조적 한계에 부딪혀 왔다.

합병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후 도농 복합 경제 지역의 소외를 막고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2개 농협의 자율적인 혁신이라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본량·삼도농협은 오는 12월 내에 설립위원회 구성·창립총회를 개최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인가를 거쳐 통합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철호 농협광주본부장은 “통합 가결은 중앙회가 역점 추진하는 농축협 규모화 정책에 발맞추고 전남광주특별시 출범에 따른 광역농업 시너지를 선점한 모범 사례”라며 “인가 등 남은 행정 절차를 차질 없이 완수할 수 있도록 중앙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주성학 기자

영암 문영식 농가 한우 ‘종합챔피언’

전남광주 으뜸한우경진대회

순천 김일용 농가 고급육 부문 대상

무안군·목포무안신안축협 최우수상

전남광주 한우의 우수한 개량 성과와 품질을 겨루는 경진대회에서 영암 문영식 농가가 종합 챔피언에 올랐다. 고급육 부문에서는 순천 김일용 농가가 대상을 차지했다.

〈사진〉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16일 “최근 열린 ‘제4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으뜸한우 경진대회’에서 번식암소 2부에 출품한 영암 문영식 농가가 대회 최고상인 종합챔피언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경진대회는 전남광주산 우량 한우를 선발하고 한우 개량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진행됐다.

한국축육개량협회 전남광주지역본부와 축산물품질평가원 광주전남지원 전문심사위원들이 출품축 110마리를 종합 심사했다.

우량 한우 부문에는 74마리, 고급육 부문에는 36마리가 출품됐으며 심사를 거쳐 우량 한우 20마리와 고급육 3마리가 입상축으로 선정됐다. 우수 사·군과 축협도 각각 3곳을 선정했다.

종합챔피언에 오른 문영식 농가의 한우는 체적과 균형이 적절하고 엉덩이와 유방, 지체구조가 잘 발달한 데다, 몸의 살붙임도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밀식사육을 하지 않고 넓고 쾌적한 환경에서 한우의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는 한편, 특별시 한우송아지 브랜드 사업에 참여하며 체계적인 개량을 이어왔다.

고급육 부문 대상은 순천 김일용 농가가 차지했다. 김일용 농가는 발효사료를 직접 제조해

한우의 성장 단계에 맞춰 급여하고 있다. 출품축은 근내지방 분포와 얇은 등지방, 넓은 단면적이 조화를 이뤄 육질과 육량 모두 좋은 평가를 받았다.

고급육 품평회 대상축은 이날 2일 평가·경매에서 kg당 5만1천원, 총 2천744만원에 낙찰됐다. 출품축은 29개월령으로 도체중은 538kg이다.

부문별 최우수상은 암송아지 부문 무안 정동일 농가, 미경산우 부문 무안 정해중 농가, 번식암소 1부 담양 남민자 농가, 번식암소 3부 고흥 신철우 농가가 각각 받았다.

최우수 사·군에는 무안군, 최우수 축협에는 목포무안신안축협이 선정됐다. /최명진 기자



“가을배추 농작물보험 가입하세요”

전남광주시, 보험료 최대 90% 지원

추가 보장하는 농업수입안정보험으로 운영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16일 “농가 소득의 불안정성을 완화하고 안정적 농업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가을배추 농작물보험 가입 신청을 오는 18일까지 지역농·축협을 통해 받는다”고 밝혔다.

가을배추 농작물보험은 자연재해 등에 따른 수확량 감소분을 보장하는 농작물 재해보험과 시장가격 하락에 따른 농가 소득 감소분까지

지급한다. 지난해부터는 가을배추 주산지인 해남 지역을 대상으로 가을배추 병충해 보장형 상품이 시범사업으로 도입돼 기상 상황과 피해면적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배추 무름병도 보장한다.

전남광주특별시는 배추 재배농가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험료의 최대 90%를 지원하고 있다. /기수희 기자

묘 이장 · 개장

가족묘 조성 / 개장 / 묘지이장 /

유골함 / 자연장

맞춤형 묘지이장 전문

문의) 062-464-3466